

『노걸대』 분석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 반도의 외국어 교육 Foreign Language Education of Korean Peninsula: Insights from Nogeldae

김정렬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Jeong-ryeol Kim(jrkim@knue.ac.kr)

요약

본 연구는 고려말에 저자미상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외국어 교재 『노걸대』에 대하여 어떻게 고려말부터 조선 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어 교재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 외국어 교재로서 그 지속성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노걸대』에 있는 대화문 구성된 의사소통 상황별로 정광의 『노걸대』 역주본에 나와 있는 106편의 대화를 만남(12편), 숙박(17편), 대도행(21편), 대도 생활(34편), 귀국(11편)으로 구분하여 평균문장길이, 어휘길이, 타입-토큰 비율, 본동사 앞 단어 수, 명사구 평균 수식어수 항목 측정치를 활용하여 외국어 교재로서의 계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걸대』는 제시된 각 의사소통기능에서 일부 명사구 내의 계열성이 무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복잡도의 계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 길이, 문장의 복잡도 계열성은 전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어휘의 다양성은 계열성이 제대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휘의 반복율이 높은 것은 기본적인 어휘의 사용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심어 : | 노걸대 | 문장의 복잡도 | 계열성 | 어휘 분석 | 의사소통기능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value and resilience of Nogeoldae which was written at the end of Koryo dynasty and has been used as the most important foreign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throughout the 500 years of Chosun dynasty. To this end, 106 volumes of dialogues, 12 of meeting, 17 of lodging, 21 of Daedo bound, 34 of Daedo lives and 11 of return in Nogeoldae are analyzed by an average length of the sentences, an average length of words, type-token ratio, number of words before main verbs and number of words before nouns to identify the progressive degree of the complexity.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Nogeoldae presents a desired progressive complexity found in modern foreign language textbooks.

■ keyword : | Nogeoldae | Sentence Complexity | Sequence | Vocabulary Analysis | Communicative Function |

I. 서론

외국어 교육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주로 외국과의 교육이나 외교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도구

적 동기와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틀레랑스를 키우기 위한 내재적 동기를 목적으로 촉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의 시작은 주로 중국의 중원을 장악한 세력에 대한 사대외교를 중시하면서 북방 국경 근처의 여진, 거란족과 바

접수일자 : 2017년 03월 13일

수정일자 : 2017년 04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4월 05일

교신저자 : 김정렬, e-mail : jrkim@knue.ac.kr

다 건너 왜와 유구국에 대한 선린외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과의 외교나 상업적 목적의 소통이 가능한 역관이 필요했다. 중앙집권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인 외국어교육 기관은 고려시대부터 기록에 있으며 이를 사역원이라고 불렀고 이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사역원의 목적은 국가의 외교와 통상에 필요한 외교관 양성에 있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보통교육으로서 외국어 교육과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외교관이 되어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높은 동기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영재교육의 형태로 국가에서 장학금을 제공하여 나이에 제한없이 입학시켜 양성하였다. 사역원은 외교와 통상 분야에 종사할 국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이 필요했고 이러한 실용외국어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재가 필요했다. 사역원에서 사용되던 교재가 『노걸대』였다. 『노걸대』(nogeoldae)는 문자 그대로 "old Chinese"라는 뜻으로 오늘날 cathay와 같이 khitan과 같이 요나라를 일으킨 거란족을 일컫는 몽고식 발음이다. 지금도 중국어에서는 노형이라는 말을 높임말로 쓰듯이 노+걸대(geoldae)는 거란인을 높인 말로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일어나서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발해를 멸망시켜 중원의 지배세력이 되어서 외국으로 중국 또는 중국인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2].

고려말 통문관에서 북방 중국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된 외국어 학습 교재로 『노걸대』와 『박통사』가 있고 전자는 초급반에서 후자는 중급반에서 사용했다. 이 두 책은 조선의 사역원에서도 사용되었던 회화 교재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조선 중종 때에 최세진이란 역관이 한글로 번역한 것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국어 교과서에도 중세 국어의 소개 자료로 실려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걸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의 실용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실용적인 것이었다. 이와같이 시간을 초월하는 실용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대화문의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대화문의 어휘수, 문법적 복잡도, 어휘 반복율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노

걸대』의 대화문을 배운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외국어 교재의 계열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걸대

『노걸대』는 여말 원나라의 수도였던 현재의 북경에서 사용되던 북방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편찬된 교재이다. 1350년경 북경으로 고려 상품을 팔러가던 고려 상인 3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요동성 출신의 중국 상인과 동행하면서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회화체로 기록한 것이다. 이 당시 북경 지역은 당이 망하고 거란이 요나라를 세우고 이어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한족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한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말과 어순이 같은 거란어와 여진어가 섞인 다른 형태의 북방 중국어가 태생하게 되었다. 이어 몽고의 쿠빌라이 칸이 이곳을 다시 연경이라 부르다가 다시 대도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 지역을 거란, 여진, 몽고가 지배하게 되면서 북방 중국어는 교착어적인 이들 언어의 영향을 받아 점차 고유어의 고립적인 문법구조가 변질되고 교착어적인 문법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중국어로 변하게 되었다.

원나라 이전에 한반도에서 접촉한 중국은 주로 당나라, 송나라였으며 요나라와 금나라는 고려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접촉이 제한적이었고 주로 공식적인 접촉은 한문을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나라가 들어서고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북방 한어를 학습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고려에서 통문관이라는 외국어 학습기관을 만들었다. 통문관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사역원으로 개칭되어 조선정부에 필요한 외국어 사용자들을 공급하게 되었다.

조선 숙종 때에 김지남이 사역원의 연혁과 중국 및 일본과의 통교에 관한 사적과 의전에 관한 '통문관지권1 연혁관계조'에는 다음과 같은 통문관에 대한 소개가 있다[3].

2. 고려와 조선의 외국어교육

사역원은 이웃나라와의 외교에서 통역을 담당하였던 역관(譯官)을 교육시켰는데 역관들은 단순히 통역 업무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와의 공무역과 사무역을 알선하는 등 경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파견되는 사행의 수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업무도 수행하였다[4][5].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사역원의 기관지인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사역원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사역원에서 외국어 교재를 저술하여 편찬하고 간행하는 과정은 먼저 유능한 사역원의 외국어 교수나 훈도는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 사용한다. 사역원 교수들과 훈도 가운데는 납치되었거나 포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국에 오래 체재하면서 해당 언어에 숙달된 경우가 있다. 사역원에 새로 부임한 교수와 훈도들은 사역원에서 오래도록 사용하여 온 교재에 잘 못된 표현을 고치고 새로운 외국어 교재를 저술하는 경우가 있었다[2].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에 진주에서 납치됐던 강우성이 10년간 일본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와서 역과 왜학에 합격하여 사역원의 화학 훈도가 된 다음 일본어 교재인 첩해신어를 새롭게 저술한 경우가 있고 병자호란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 병사들이 돌아온 후에 첩해몽어를 저술한 것 등이 있다.

사역원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를 사용하였는데 이 교재들을 역학서라 한다. 조선 초기에는 한학서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의 역학서는 주로 해당 외국어의 아동 학습서를 이용하였지만 중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사역원에서 자체 개발한 역학서와 어휘집이 쓰였다. 해당 외국어의 사정과 조선 사회의 상황,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어떤 역학서들은 새롭게 쓰이게 되고 어떤 역학서들은 쓰이지 않거나 폐지되었다. 역학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름만 알 수 있는 역학서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역학서가 짧은 기간에 쓰이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학서인 『노걸대』, 『박통사』와 왜학서인 『첩해신어』 등은 편찬된 이래로 여러 판을 개정해 가면서 사역원이 폐지될 때까지 쓰였다.

『노걸대』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이 통문관과 사역원에서 실시되었고 실용외국어 교육의 전통이 우리나라에 오래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노걸대』에 나타난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여 그 당시에 역관들이 사용하던 실용외국어의 기능들을 분석하고자 한다[6][7].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원본 『노걸대』의 역주본인 정광(2010)에 나와있는 106편의 대화이다. 이들의 주제는 만나서 서로를 알고 여행의 목적을 묻고 답하는 12개의 대화가 있고 여관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17편이 있고 당시 북경의 이름인 대도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21편, 대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34편, 사람 사는 도리에 관해서 대화하는 11편, 고국인 고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11편이다. 이 중에서 사람사는 도리에 관한 대화는 발화가 산문적이고 길어서 대화문으로 간주하기 힘들고 본고의 분석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5권을 각각 만남(12편), 숙박(17편), 대도행(21편), 대도생활(34편), 귀국(11편)으로 분류해서 분석한다.

『노걸대』는 내용상 고려시대의 이야기이어서 고려말 명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노걸대』가 기록상에 나타나는 것은 세종때의 일이다. 그 이후에 청나라가 건국되고 한족이 대량 학살되고 여진어 사용자들이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면서 중국어의 발음이 격변하게 된다. 이와같이 급격하게 변화된 발음을 따라 잡기 위해서 『노걸대』는 주기적으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본고의 분석대상이 되는 『노걸대』는 최세진의 『노걸대』 언해본으로 중세국어로 언해된 『노걸대』이다. 의사소통기능을 예시하는데 있어서 한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보다 중세국어로 번역된 언해본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시는 언해본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

하여 구성한다.

2. 분석 기준

대화문의 의사소통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106편의 대화에 나오는 언어표현을 분석하여 통계를 낸다.

만나서 서로를 알고 여행의 목적을 묻고 답하는 12편의 대화가 있고, 여관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17편이 있고, 당시 북경의 이름인 대도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21편, 대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34편, 고국인 고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형태가 대화편이 진행될 수록 심화, 확대되는지 살펴보는 계열성 분석을 위하여 나선형적 접근 방식과 Coh-Metrix 측정치를 활용한다.[8] 먼저 나선형 접근 방식에서 언어 형태상의 발전 기준은 [9-12]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한다.

첫째, 새로운 형태가 제시된 경우이다. 둘째, 기존 형태보다 긴 문형이 제시된 경우이다. 셋째, 의미상으로 복잡해졌을 경우이다. 문법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동일한 문형일지라도 어휘가 달라질 경우 형태상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Coh-Metrix를 통한 분석은 의사소통기능 예문 비교 분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보완하는 보충자료로 활용한다. 평균문장길이, 어휘길이, 타입-토큰 비율, 본동사 앞 단어 수, 명사구 평균 수식어 수 항목 측정치를 활용하여 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이 계열성을 이루는지 객관적으로 살핀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의 평균 길이가 길어질수록 텍스트의 읽기 및 이해 난이도가 증가하므로[13] 평균 문장길이 및 어휘길이 항목을 통해 이를 분석한다. 타입-토큰 비율을 통해 다양한 어휘가 포함되어있는지 살펴며, 본동사 앞 단어 수 및 명사구 평균 수식어 수 측정치를

통해 의사소통기능이 통사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의사소통기능의 범주별 분포

다섯 개의 큰 범주인 만남(12편 13%), 숙박(17편 18%), 대도행(21편 22%), 대도생활(34편 36%), 귀국(11편 13%)으로 분류한 대화문을 총 95편 2500개의 의사소통기능을 분류한 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상위 4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각 범주별 의사소통기능 빈도수의 총합과 비율은 [표 1]과 같다.

『노걸대』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 총 빈도수는 2500개인데 만남 293개, 숙박 450개, 대도행 660개, 대도생활 900개, 귀국 325개였다. 숙박과 관련해서 의사소통기능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말을 타고 대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관에서 방을 얻고 식사와 마굿간과 먹이를 구하는 등의 활동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수도인 현재의 북경을 대도라고 했고 부마국인 고려에서 대도로 사절로 가는 것은 역관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 대도행과 대도생활에 관련된 안부, 정보, 진술 및 보고, 요청 등의 의사소통기능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의사소통기능의 범주간 계열성

범주간 의사소통기능 측면에서 『노걸대』가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문장의 길이가 확대되거나, 복잡한 구조로 반복되며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기능의 계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화문 코퍼스를 통해 의사소통기능항목 별 문장을 추출한 후 대표적인 문장을 학

표 1. 의사소통기능의 범주별 분포

순	의사소통기능	만남	숙박	대도행	대도생활	귀국
1	안부묻고 답하기	60	101	140	200	60
2	정보묻고 답하기	96	160	280	280	120
3	진술 및 보고하기	85	120	140	220	105
4	요청하고 답하기	52	69	100	200	40

년 간 비교 하였으며, Coh-Metrix를 통한 검증은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여백의 제한으로 인해서 안부묻고 답하기와 정보묻고 답하기 기능으로 제한하여 제시한다.

1) 안부묻고 답하기

안부묻고 답하기는 대도로 출장갔다가 귀국하는 모든 범주에서 제시된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항목이다. 안부묻고 답하기와 같은 표현은 비교적 관용적인 표현으로 제한적이지만 의사소통 내용에 따라 『노걸대』에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형·님/네 :성·은”(형씨 성은?), “내 :성·이 王 :개로·라”(내 성은 왕입니다.), “네 지·비 어·되·서 :사·논·다”(당신 집이 어디신가?)에 대한 답으로 “내 遼陽·жат 안·해서 :사·노·라”(나는 요양성에 삽니다.)와 같은 대화로 이루어진 안부묻고 답하기 의사소통기능들이 있다.

따라서 범주별로 다양하게 집필된 문장 형태 중 대표성을 갖는 표현을 선택하여 범주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표 2]와 같이 Coh-Metrix 분석 결과만을 통해 의사소통기능이 계열성을 갖는 지 살펴보았다.

문장의 길이 항목에서는 만남의 경우 단어 수 평균이 4.98, 숙박 5.10, 대도행 6.94, 대도생활 5.99, 귀국 6.02로 『노걸대』의 후반부로 갈수록 문장 길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길이는 음절수를 기준으로 세었는데 이 항목 역시 범주별로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본동사 앞 단어수는 문장의 통사적 복잡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범주별로 2.56, 2.43, 3.34, 2.84, 3.34

로 높아져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범주간 통사적 복잡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범주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이 언어 형태 측면에서 계열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통사적 복잡도를 가능하는 것은 명사구 내에서 핵심 명사 앞에 수식어가 몇 개나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명사구 평균 수식어수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명사 앞에 오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문장의 형태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이하게 대도로 가거나 돌아오는 여행 중에 새로운 물건이나 풍경들의 이름을 모르고 묘사하는 과정에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1.53과 1.57로 수치가 각각 높게 나왔다. 그 외에는 1.25에서 1.35 사이에서 비교적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의 계열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명사 수식어가 길어지긴 하였으나 문장의 난이도나 복잡도가 증가하는 계열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성 수치를 제외하면 안부묻고 답하기 기능은 『노걸대』를 배우면서 점진적으로 문장 길이가 길어지며, 타입-토큰 비율이 높아지고, 통사적으로 복잡해져 계열성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정보 묻고 답하기

정보묻고 답하기도 안부묻고 답하기와 마찬가지로 대도로 출장갔다가 귀국하는 모든 범주에서 제시된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항목이다. 정보묻고 답하기와 같은 표현은 대도로 가면서 고려에는없는 문물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새로운 생활양식과 지리에 대한 질문과

표 2. 안부묻고 답하기의 Coh-Metrix 분석 결과

분석항목	범주					
	만남	숙박	대도행	대도생활	귀국	
문장 길이	단어수 평균	4.98	5.10	6.94	5.99	6.02
	표준편차	2.05	2.04	2.97	2.54	2.97
어휘 길이	음절수 평균	3.32	3.75	3.21	3.43	3.89
	표준편차	1.62	1.83	2.03	2.13	2.02
어휘다양성	타입_토큰 비율	0.28	0.29	0.28	0.29	0.37
통사적 복잡성	본동사앞 단어수 평균	2.56	2.43	3.34	2.84	3.34
	명사구 수식어 수 평균	1.35	1.33	1.53	1.25	1.57

답변 등 『노걸대』에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네 ·이 :덤·에 콩 ·딤 :다 있는·가 :업·슨·가”(이 집에 콩과 짚이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한 답으로 “콩 ·딤 :다 잇·다. 콩·은 거·른 콩·이·오/·딤·픈 좇 ·딤·히·라”(콩, 짚 모두 있습니다. 콩은 검은 콩이고 짚은 조짚입니다.) 또한 “콩·은 :연·머·의 혼 ·마리·며/·딤·픈 :연·머·의 혼 ·뭇·고”(콩은 한말에 얼마며 짚은 한뭉음에 얼마고)와 같이 콩과 짚의 가격을 묻는 답변으로 “콩·은 :썬 ·낫 :돈·애 혼 ·마리·오/·딤·픈 ·열 ·낫 :돈·애 혼 ·무시·라”(콩은 한말에 50돈 정도고 짚은 10돈쯤 합니다.)같은 답변으로 이루어진 정보문고 답하기 의사소통기능들이 있다.

따라서 범주별로 다양하게 집필된 문장 형태 중 대표성을 갖는 표현을 선택하여 범주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표 3]과 같이 Coh-Metrix 분석 결과만을 통해 의사소통기능이 계열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문장의 길이 항목에서는 만남의 경우 단어 수 평균이 6.02, 숙박 5.89, 대도행 7.04, 대도생활 6.89, 귀국 6.77로 안부문고 답하기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평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안부문고 답하기와 마찬가지로 『노걸대』의 후반부로 갈수록 문장 길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 길이는 음절수를 기준으로 세었는데 이 항목 역시 안부문고 답하기에 비하여 단어의 길이가 길고 책의 뒤로 진행될수록 범주별로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어휘 다양성 항목에서는 대도행의 경우 0.35로 새로 제시된 어휘가 자주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주별로 만남 0.36, 숙박 0.38, 대도행 0.35, 대도생활 0.38, 귀

국 0.41 로 큰 차이는 없으나 귀국의 경우에는 대도에서 가지고 온 새로운 물건들과 관련된 어휘들이 있어서 비교적 점진적으로 타입-토큰 비율이 높아져, 정보문고 답하기 기능에 사용된 어휘가 연계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동사 앞 단어수는 문장의 통사적 복잡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범주별로 만남 2.98, 숙박 2.99, 대도행 3.67, 대도생활 3.2, 귀국 3.67로 높아져 대도행에서 다양한 문물을 접하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어휘가 다양해지는데서 기인된 3.67을 예외를 제외하면 범주간 통사적 복잡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범주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이 언어 형태 측면에서 계열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가 외국어 교육에 관한 계획과 실행을 관장하는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을 제공하여 교과서 집필 시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였으나[6] 각각의 의사소통기능 간 계열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과서마다 의사소통기능을 제시하는 순서나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8][14][15]. 외국어로서 한어를 배워야 했던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노걸대』가 갖는 외국어 교재로서 위상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기능에 나타난 언어항목별로 교재에 내재된 계열성을 살펴 보았다. 그동안의 노걸대 연구는 문헌학적 연구와 중세 한어의 발음연구와 같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1-4]. 이러한 연구도 『노걸대』와 같은 중요한

표 3. 정보문고 답하기의 Coh-Metrix 분석 결과

분석항목		범주				
		만남	숙박	대도행	대도생활	귀국
문장 길이	단어수 평균	6.02	5.89	7.04	6.89	6.77
	표준편차	3.09	2.78	3.25	3.04	3.64
어휘 길이	음절수 평균	3.87	3.98	3.79	3.67	3.99
	표준편차	1.73	1.92	2.23	2.36	2.43
어휘다양성	타입·토큰 비율	0.36	0.38	0.35	0.38	0.41
통사적 복잡성	본동사앞 단어수 평균	2.98	2.99	3.67	3.2	3.67
	명사구 수식어 수 평균	1.78	1.65	1.89	1.68	1.84

문헌의 진면목을 밝히는데 중요하지만 외국어 교재로서 『노결대』의 진정한 의미는 외국어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그 계열성이 얼마나 유의한 것인지에 대한 탐구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노결대』는 제시된 각 의사소통기능에서 일부 명사구 내의 계열성이 무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복잡도의 계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연구는 특수교육으로 사역원 외국어교육과 현대의 보통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외국어교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집중도, 의무감, 직무관련성 등에 있어서 사역원 외국어교육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국어교육에 대한 시사점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본연구의 제한점이다.

참 고 문 헌

[1] 정광, 원본 노결대, 김영사, 2004.
 [2] 정광, 역주 원본 노결대, 박문사, 2010.
 [3] 세조대왕, 경국대전,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1467.
 [4] 김양수, 「중인생활」, 『조선시대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 1996.
 [5] 김양수, 「조선전기의 譯官活動」, 『실학사상연구』 7·8집, 무악실학회, 1996.
 [6]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2011.
 [7] 김임득, “영어과 교육과정과 의사소통기능,” 영어교육, 제47권, pp.3-27, 1994.
 [8] D. S. McNamara, A. C. Graesser, P. M. McCarthy, and Z. Cai, *Automated evaluation of text and discourse with Coh-Metrix*,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9] R. Richterich, A model for the definition of language needs of adults, In R. Richterich, J. Van Ek, & D. A. Wilkins, *Systems development in adult language learning* (pp.31-62),

Pergamon Press, 1980.

[10] J. Van Ek, *Threshold level English*, Pergamon, 1980.
 [11] 송자경, 윤이정,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연계성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문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제9권, 제2호, pp.149-188, 2003.
 [12] C. J. Brumfit and K. Johnson, (Eds.),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13] 임인재, 전문기, “코퍼스에 기반한 중학교 1학년 개정 영어교과서 듣기자료 비교 분석,” 영어학, 제13권, 제1호, pp.105-134, 2013.
 [14] 김현주,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과 상황의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1999.
 [15] 박옥희,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연계성 관찰: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19권, pp.117-136, 2007.

저 자 소 개

김 정 렬(Jeong-ryeol Kim)

증신희원



- 1996년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2012년 ~ 현재 : 한국영어다독학회 회장
- 2011년 ~ 2012년 : (전) 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

- 2013년 ~ 2014년 : (전) 외국어교육학회 회장
 - 2012년 ~ 현재 :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이사
 - 2014년 ~ 현재 : Reading in Foreign Languages 저널 편집이사
 - 2015년 ~ 현재 :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 <관심분야> : 컴퓨터활용 영어교육, 초등영어교육, 영어교수법